

## 팬덤정치의 민주주의 기제 가능성 검토

조재욱\* · 강진우\*\* · 김연주\*\*\*

### • 요 약 •

오늘날 팬덤정치가 민주사회에 있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팬덤정치는 이성보다 증오와 혐오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고 있다. 그러나 팬덤정치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팬덤정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의 결과이다. 팬덤정치가 나름 민주주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사모 사례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노사모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였고, 노무현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였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의 정치를 일삼지 않았다. 노사모의 이 같은 행위는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공동선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함께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정치철학이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팬덤정치는 팬덤과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특성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 방향, 즉 퇴행이나 진전이나에 영향을 미친다. 팬덤의 강성화 또는 극단화를 막고 팬덤이 민주주의 증진의 보완적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팬덤의 선동정치에 대한 정치인과 정당의 적극적인 반응과 책임이 요구된다.

주제어 : 정치팬덤, 팬덤정치, 민주주의, 건강한 팬덤정치, 반지성 팬덤정치, 노사모, 공화주의

“H.O.T. 팬의 이름으로 타 가수를 비방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라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키워라.”  
(클럽 H.O.T.의 10계명 중 5계명)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MBN 기자) : 공동저자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KBS 창원 작가) : 공동저자

## I. 머리말

이 글은 “팬덤정치(fandom politics)가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backsliding)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당정치 전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로 ‘강성 정치팬덤(이하 팬덤)’을 꼽고 있다. 더욱이 이를 부추기는 편향적인 언론과 미디어들에 의해 팬덤정치는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란도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팬덤정치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팬덤정치는 우리사회에서 지양되거나 혹은 중국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치문화인가?

실제 오늘날 팬덤은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진영 내부에서조차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충돌과 분열을 일삼고 있다. 팬덤이 당대표 선거나 당내 경선과정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팬덤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는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반지성주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의 다원성과 통합을 저해시켜 중국에는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본다. 팬덤에 의한 정치 갈등의 심화가 우리 정치문화를 망가뜨리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혹자는 팬덤정치를 두고 ‘정치깡패’, ‘정치홀리건’, ‘정치광신도’와 같은 전체주의적 요소와 결부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팬덤정치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팬덤정치는 민주주의 증진에 있어 나름의 역할을 보인 바 있다. 노사모의 경우 반지성적 집단이 아닌 정치문제에 열의와 관심을 가진 성숙한 팬덤으로서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정치적 열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오히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엄숙한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며,<sup>1)</sup> 정치적 열정이 맹목적이고 분열 없는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팬덤정치는 사회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팬덤정치는 ‘가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팬덤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민주사회에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팬덤정치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인간이 일인칭적·주체자적 행위자임을 감안하면,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

1) 박권일, “정치 팬덤이라는 증상: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과 비판을 중심으로”, 『자음과 모음』, 2018년 가을호, (주)자음과 모음, 2018, p.89.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현실에서 대신 실현해 줄 정치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팬덤정치의 개혁은 가능하나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개혁 방향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전후로 개딸 등 기존 팬덤 이외에도 한동훈, 조국 등을 지지하는 새로운 팬덤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후자의 사례를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수적인 규모면에서 이들의 가파른 증가세가 부각되고 있지만, 개딸과 달리 이들은 공천 등 선거과정에서 파장을 몰고 올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언론에서도 개딸에 비해 이들을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팬, 개딸을 중심으로 오늘날 팬덤현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 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머리말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팬덤정치, 정치팬덤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사회에 있어 팬덤정치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 상대적으로 보수 팬덤 활성화가 미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팬덤정치의 형성과 활성화 원인을 뉴미디어의 편향성, 정당의 체질약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팬덤정치의 폐해를 민주주의 퇴행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팬덤정치가 민주정치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노사모-노무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끝으로 VI 장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요약과 함께 향후 팬덤정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II. 팬덤정치의 개념정의와 출현 역사 및 추이

### 1. 정치팬덤과 팬덤정치의 개념정의

팬덤은 팬(fan)과 세력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 덤(dom)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팬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특정 유명인을 좋아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칭한다. 따라서 팬덤은 특정 유명인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 무리’ 또는 ‘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해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정인의 신념과 가치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하나의 집합체(club) 또는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게 되면 ‘팬덤(fandom)’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팬덤은 특정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고, 나아가 특정인과 함께 유대감을 확장해 나간다.

대표적인 문화팬덤으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A.R.M.Y.)를 들 수 있다. 아미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2024년 1월 현재 <BANGTANTV> 구독자 수는 7,740만 명, <bts.bighitofficial 인스타그램> 팔로어(follower)수는 7,433만 명 임을 감안할 때 최소 8,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미는 BTS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시대정신을 수렴하여 전 세계에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 폭력, 인종, 보건의료, 환경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BTS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부운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sup>2)</sup> 이 외에도 BTS의 노래 'Not Today'를 틀고 따라 부르며 미안마를 비롯한 비 민주주의 국가를 비판하고, 이들 나라의 시위대를 돕기 위해 모금행렬에 나서고 있다. 아미는 세계인을 상대로 새로운 글로벌 공동체 구축과 함께 글로벌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이제 전 세계 진보정치 세력의 주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래 fan은 '광신자'의 뜻을 가진 'fanatic'의 준말이다. 오늘날 팬덤은 단순 좋아함과 동경을 넘어선 '광신', '맹신'에 가까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팬덤은 앞서 언급한 일반개념과 함께 '광신 팬들의 무리 또는 집합체'라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광신과 맹신 같은 지나친 팬덤 의식은 특정인을 신격화하기도 한다. 광신팬덤은 자신들의 리더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 그의 잘못을 짚어주기 보다 비판을 한 대상에게 원색적인 비난 등 무분별한 공격을 가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논란과 물의를 빚기도 한다.

팬덤정치 개념에 대해 학문적으로 아직 명확히 정의된 것은 없다. 화자(話者)에 따라 제시하는 정의와 내용이 각기 다르며,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무엇보다도 지칭 대상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팬덤정치의 행위주체가 정당 또는 정치인인지 아님 지지자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sup>3)</sup> 그리고 팬덤정치와 정치팬덤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중문화 팬덤의 의미를 정치분야에 접목해서 본다면 특정 정치인을 열성적으로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팬들이 만든 집합체를 '정치팬덤'이라 할 수 있다.<sup>4)</sup> 그리

2) 예컨대, BTS가 미국 인종차별 반대 'Black Lives Matter(BLM)'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아미도 이 행렬에 동참하여 100만 달러의 금액을 기부하였고, 코로나 19시기 BTS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연대의 메시지를 내자, 아미는 이를 화답하는 차원에서 수익 원을 기부하였다.

3) 조은혜, 『"팬덤정치"라는 낙인: 문제인 지지자, 그들은 누구인가』, 파주: 오월의 봄, 2023, p.32.

4) 지지자들의 모임, 네트워크 자체만을 놓고 정치팬덤이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늘날 정치팬덤으로 일컫는 지지자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대중팬덤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반면, 과거 3김 시대의 지지자들 경우,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호감을 표하지만, 정치참여 및 활동에 있어서는 비자발적이면서 비주체적

고 팬덤의 일련의 정치적 행위 또는 팬덤을 적극 활용하는 정치가의 행위를 ‘팬덤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덤정치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팬덤을 통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팬덤에게 끌려다니거나 기대는 정치인이 대다수이다. 팬덤의 확보가 곧 정치적 자산의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오늘날 팬덤정치의 실질적 행위주체는 팬덤, 즉 지지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상황에 국한하여 팬덤정치를 규정하면 ‘네트워크화 된 팬의 행동주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이처럼,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날 팬덤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부정적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주체인 팬덤이 어떠한 정치적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팬덤과 정치인, 정당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팬덤정치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컨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감대 조성, 지지 정치인에 대한 건설적 비판 및 견제 등과 같은 행위는 건강한 팬덤정치,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반면에 팬덤의 권력화와 폭력화, 지지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혐오와 증오의 팬덤정치, 나쁜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팬덤정치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후자의 부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이를 고려해서 오늘날 팬덤정치를 규정하면 팬덤이 차이와 이견을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정당과 의회 등 정치를 짓누르는 현상, 또는 정치인이 팬덤을 만들고, 기대며 이를 권력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단, 이는 최근 현상에 국한해서 개념화한 것이지, 팬덤정치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요소와 긍정적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2. 정치팬덤 출현의 역사와 현재의 동향

주지하듯, 우리사회의 정당사는 인물중심의 정치사이다. 정당들은 특정 개인의 권위에 의해 지배되거나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여기에 대다수 지지자들은 선거 때마다 이들이 지배하는 정당의 승리와 이들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강력한 결집현상을 보여 왔다.

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치팬덤은 단순 지지자들과 달리 자신들의 지지행위는 사고 과정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이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을 통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를 실현코자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김경호,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타난 문제인 팬덤을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참여시민사회연구소, 2020, p.88.

5) Rebecca, Williams and Lucy Bennett, “Fandom and Controvers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no. 8, 2022, pp.1039-1040.

6) 이철희, “애착을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한겨레신문』(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987.html>(검색일: 2024.05.31).

대표적인 예로 3김 시대 정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개개인의 지지가 집합체 출현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당시 지지자들의 정치활동은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함께 3김이 주최하는 유세 및 집회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3김 중심의 정치결사체가 형성되더라도, 이것은 리더 중심의 수직적 형태의 정치 사조직에 불과하였다.

정치팬덤, 팬덤정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난 것은 ‘노사모’의 등장부터이다. 노사모는 과거의 지지들과 차별성을 보였다. 노사모는 노무현이라는 특정인을 추종하였지만 이들은 단순 추종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정치행위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인터넷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노사모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발휘하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치행동에 나섰다.<sup>7)</sup>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정치팬덤, 팬덤정치는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2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의 ‘박사모’를 제외하고 노사모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대표적인 팬덤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생겨났다. 특히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선과정에서 진보팬덤, 보수팬덤이 상당수 형성되었다.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인의 ‘문팬’, 이재명의 ‘손가혁’, 안희정의 ‘아나요’가, 보수진영에서는 반기문의 ‘반사모’, 황교안의 ‘황대만’, 유승민의 ‘유심초’가 등장하였다. 이들 패덤 중 상당수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선과정에서 낙마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소멸되거나 또는 외적 형태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활동은 접은 상태이다. 20대 대선과정에서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팬덤이 존재하였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건희사랑’과 ‘건사랑’이라는 팬 카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당정치를 비롯하여 정치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팬덤으로 박사모, 문팬, 개딸, 이대남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사모는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광용이라는 1인이 박근혜 팬 카페를 창설하였고, 이후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팬 카페는 박사모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였다. 박사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와 맞서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방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이후에는 태극기 부대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팬은 2004년 결성된 문사모를 시발로, 이후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문풍지대’, ‘노란우체통’, ‘젠틀재인’ 등으로 파생되다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팬이라는 연합 팬 카페로 통합되었다.

현역 정치인 중 팬덤정치의 한 가운데 있는 대상은 이준석과 이재명이다. 이준석의 팬

7) 조은혜, ‘앞의 책’, p.28.

덤인 ‘이대남’은 기존 팬덤과는 달리 특정 인물보다는 사회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보니 이대남은 앞서 언급한 팬덤과 달리 팬덤확장과 팬덤의 구심적 역할에 필요한 팬 카페 운영을 하지 않았다. 에펠키리아(FMKorea)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남성의 사회적 차별 등 20대 남성들이 공감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을 형성해왔고, 이후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반(反)페미니즘을 추구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를 ‘준스톤’, ‘킹준석’으로 부르면서 지지하는 팬덤이 되었다.<sup>8)</sup>

이후 이대남은 2021년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30 남성층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중진들의 집중 견제를 받자,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민의 힘 당원가입 운동이 벌어졌다. 이대남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원 인증 글을 남기며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전당대회(2021년 6월 11일) 전후 한 달 간 가입한 당원은 약 2만 3,000명이었고, 이중 40%가량인 8,958명이 30대 이하였다.<sup>9)</sup>

오늘날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팬덤은 단연코 이재명의 개딸(양아들)이다. 개딸은 20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20대 대선 막판 윤석열 당선을 막고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득표를 상승에 공헌했던 2030여성들이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팬 카페에 몰려와 자신들을 개딸로 칭하였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딸은 대선패배 후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이재명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연이어 당대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펼쳤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거론된 정치인들이 다 같은 팬덤 리더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매우 극단적이면서도 적대적인 정치언어를 쉽게 동원하여 팬덤을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 주체로 키웠고, 이들의 나쁜 정치행위에 대해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을 등에 업고 정치활동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권력쟁취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은 팬덤을 숙주로 삼고 활동하는 ‘기생(寄生, parasitism)의 리더’, ‘불살이 리더’로 볼 수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팬덤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지 않았지만, 때로는 팬덤을 등에 업고 정치활동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며, 이들의 나쁜 정치행위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때로는 팬덤을 자신들의 정치

8) 김태일, “이대남의 이준석 지지, 팬덤 아닌 합리적 선택”, 『중앙일보』(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117#home>(검색일: 2024.05.10).

9) 강병익, “한국의 반지성주의적 팬덤정치와 정당의 내파와 축소”,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22, pp.4-5.

적 보호막으로 삼은 ‘편리공생(片利共生, commensalism)의 리더’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의 경우 서구식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팬덤 리더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0)</sup> 하지만 노무현 역시 노사모라는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들과 연대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 점에서 팬덤 리더로 볼 수 있다. 단, 노무현은 팬덤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기득권 정치 타파와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노무현은 다른 정치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한 팬덤을 양성한 리더였고, 팬덤과 함께 정치적 발전을 도모한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의 리더’였다.

한편, 우리사회 팬덤현상의 특징 중 하나로 보수진영의 팬덤의 활성화가 진보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덤은 소속감을 느끼는 커뮤니티이다. 이를 감안할 때 팬덤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치인 개인의 스타성과 리더십, 둘째,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데,<sup>11)</sup> 보수진영은 스타성을 갖춘 인물과 혁신에 가까운 정책 두 가지 모두가 진보진영에 비해 부재하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수진영의 정치인 대다수는 뚜렷하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정치를 추구하기보다 상대진영에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온라인에서 열혈 지지층을 형성할 만한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참신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기보다 견제에 치중하다 보니 회고적 형태의 팬덤만이 존재하고 있다.

### III. 팬덤정치의 형성과 활성화 동인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고 확산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는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치적 관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시민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정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각종 집단이나 단체, 사이버 네트워크 등 외부 매개 조

10)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2023, pp.90-92.

11) 송경재, “보수의 몰락: 버림받은 보수”, 『머니투데이』(온라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1309067698149>(검색일: 2024.03.17).

직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참여는 오히려 사회의 이념적 분극화와 균열을 더욱 증폭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편 가르기 형태의 집단주의 문화 확산, 다원주의 훼손, 소수의 과대대표 등 민주주의의 퇴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한편,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은 디지털 생태계에 녹아들지 못하면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심층적 탐사 그리고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보도전달에 국한된 일방통행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대신 뉴미디어라 할 수 있는 유튜브(Youtube), 팟캐스트(podcast) 등의 개인방송들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되면서 간결성과 의견 축적성, 정보 선택성의 특징을 보이며 시민들을 쉽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뉴미디어는 정보수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 주류 미디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뉴미디어는 정보 선택성 때문에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팬덤정치를 부추기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 유튜브나 개인방송을 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서 긍정적인 관심이나 옹호하는 기사와 댓글은 참여 구독자에게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형성케 하고, 반대의 의견이나 비판의 글에 대해서는 침략행위로 간주하여 상당히 거칠게 공격적으로 맞선다. 이 때문에 집단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된다.<sup>13)</sup>

이처럼 일부 뉴미디어 운영자들이 본인의 정치적 시각을 프로그램화 시키고, 이를 동조하는 구독자들이 집단화 되면서 팬덤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 상당수 유튜브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재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4)</sup> 뉴미디어는 정치적 ‘확증편향’을 더욱 강화시켜 팬덤을 양성 및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분야 뉴미디어 운영자들은 본인들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보다는 자극적이고, 경사(傾斜)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한다. 흑과 백, 적과 아군 같이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이분법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12) 송경재,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3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pp.192-194.

13) 이현숙, “정치 팬덤 문화가 뮤지컬 제작에 미치는 영향: <뮤지컬 박정희>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제17권 2호, 한국영화교육학회, 2023, p.7.

14) 강명현, “유튜브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는가?: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제20권 4호, 한국소통학회, 2021.

다양성을 배제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편향적 태도는 자신들의 집단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어 상대 정당에 대해 극렬히 비판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추종하는 리더의 당내 비판, 견제세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적대성을 보인다.<sup>15)</sup>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뉴미디어의 편향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팬덤정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챗(super chat, 후원금) 상위 7개 모두 강한 정치이념의 색채를 띠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진보 채널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 특정 정치인을 부각 시키거나 또는 일방적인 편을 들어 구독자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중국에 팬덤조직의 밑알이자 세 확장의 토대 구실을 하게 된다.

<표 1> 정치 유튜브 채널 슈퍼챗 순위 (2023.1.1.~12.31.)

전체 순위	정치영역 순위	채널 명	슈퍼챗 액수	운영자
2	1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92,707,355	김어준(진보)
3	2	떴다! 개총수	413,829,282	시사타파(진보)
4	3	이큐채널	354,236,242	홍준표(보수)
6	4	세이엔터	330,847,416	가세연(보수)
11	5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213,049,729	강용석(보수)
12	6	유재일	202,166,421	유재일(보수)
17	7	스튜디오 더 탐사	163,155,670	강진구(진보)

출처: 문화일보 2024.1.10일자 신문과 플레이보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https://playboard.co/youtube-ranking/most-superchatted-all-channels-in-south-korea-yearly>  
 (검색일: 2024.02.26).

실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외 이동형 TV, 박시형 TV 등에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이재명(이하 친명)계를 노골적으로 띄우거나 편드는 모습을 보였다.<sup>16)</sup> 더욱이 이들 채널은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단순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명 팬덤이다. 따라서 민주당 현역의원을 비롯한 당내 총선 출마자들은 이들 채널에서 비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였고, 반면에

15) 이현숙, '앞의 논문', p.7.

16) 이우연, "'친명 유튜브 말대로 공천이'... 커지는 이재명 사친 논란", 『한겨레신문』(온라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0312.html>(검색일: 2024.03.17).

일부 친명계는 이들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당내 비명계 공격을 통해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하였다.<sup>17)</sup> 이처럼, 정파성이 강한 뉴미디어들은 팬덤과의 공생공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시민이 아닌 정치채널과 팬덤에 눈치를 보면서 이들에게 구애를 하였다.

이렇듯, 정치인들은 뉴미디어와 팬덤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당정치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 당권파들은 뛰어난 협상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기보다 팬덤의 힘을 빌려 당내 경쟁자인 비당권파를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팬덤이 민심과 괴리된 목소리를 표출하더라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한다. 대중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팬덤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론이 거센 반발을 하더라도 당내 지지층 또는 당원들의 요구를 수렴했다는 것을 명분삼아 방패막을 세운다. 그 결과 당내 의사결정 과정은 형해화(形骸化) 되고 있다.<sup>18)</sup>

정당의 체질 약화가 팬덤정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정치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라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 약한 정당정치와 강한 당파성을 갖는 시민들의 등장과 결합은 강성 지지층의 정당 접수, 즉 팬덤당원의 당 지배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sup>19)</sup> 최장집은 “팬덤의 리더는 있어도 정당의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 바 있다.<sup>20)</sup> 과거에는 이익집단, 종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조직된 매개 집단과 정당 및 정치인이 연계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양자 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우리사회는 서구사회보다 이러한 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이처럼, 오늘날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매개 약화(mediation weakening)’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 매개조직이 약한 사회에서는 특정 정치인에게 과도한 기대와 역

17) 김종우, “민주정선은 ‘친명 유튜브’가 좌지우지...떨고 있는 비명현역”, 『한국경제』(온라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584321>(검색일: 2024.04.13).

18) 팬덤정치에 휘둘리는 정당의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경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Tea Party)’에 찍힐까 봐 눈치를 보는 미국 공화당과 흡사하다는 시각을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Barack Obama) 정권시절, 티파티의 압력에 떠밀려 오바마 케어 폐지 요구와 함께 미 연방정부의 섀도우(일시적 업무정지)를 감행했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에 직면하였다. 이후 공화당 내에서 티파티에게 더 이상 휘둘러선 안 된다는 우려가 생겨났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서 공론화 하지 못했다. 이것은 응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아무리 떠들어도 달라질게 없으리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체념과 절망감이 만들어낸 ‘조직화된 침묵’이었다. 이세영, “정당은 왜, 팬덤정치에 휘둘리는가”, 『한겨레21』(온라인),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12.html](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12.html)(검색일: 2024.04.10).

19) Przeworski, Adam, *Crises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0) 최장집, “민주화와 민주주의 위기”,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최 특별강연, 2023.04.19.

사적 소명을 부여하기 쉽다. 특히 한국처럼 인물중심의 정당화 된 정당구조나 소수의 유력 정치인에게 포획된 정당 체제에서는<sup>21)</sup> 더욱 그러하다. 반면, 매개조직이 튼튼하게 뿌리 내린 유럽 같은 곳은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으며 성장한 인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물정치의 폐해는 보기 드물다.<sup>22)</sup>

우리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도 팬덤정치 형성에 원인이 된다. 상술하였듯이, 대다수 팬덤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내각제는 정당분위에 의해 정치가 작동하지만 대통령제는 인물분위, 인물중심의 정치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해 대통령제는 한명의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제도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와 정치는 정당 간, 정당 내부보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결과 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환호와 맹목적 적대 양상으로 양분화 되어 대립한다. 따라서 잠재적 대선 후보자는 팬덤에게 세상을 구원할 영웅처럼 간주되기도 하지만, 반대파에게는 악의 화신처럼 여겨진다. 이로 인해 거대한 집단적 열정들이 대선 후보자를 둘러싸고 동원되고 충돌하는 파당적 양극화가 반복해 등장하게 된다.<sup>23)</sup> 팬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리더를 대선후보로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은 리더의 당선을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것이다. 팬덤 당원들은 일반당원이나 대의원과 달리 소속정당이 아닌 한 명의 정치인만을 위해 활동한다.

이처럼, 대통령중심제는 팬덤을 낳고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제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Donald Trump)는 이미 팬덤을 등에 업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다음 재선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팬덤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자 2021년 1월 6일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팬덤들은 미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트럼프는 팬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했고, 그들은 2024년 대선을 앞둔 현재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다시 보내고 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후 91건의 혐의로 4차례 기소되었으며, 인품과 도덕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현재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다름 아닌 팬덤정치의 진면목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3년 2월 24일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한 위압행사 건으로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수감절차를 밟는 동안 머그샷(Mug

21) Hellmann, Olli,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Parties: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4, no. 3, pp.53-84.

22) 박권일, '앞의 논문', pp.197-198.

23) 차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정치·정보연구학회, 2021, p.169.

Shot, 범인 식별용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결코 굴복하지 말라(NEVER SURRENDER)’는 문구와 함께 머그샷은 X(트위터)에 올라왔고, 조회수는 2억회 이상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선거 자금 모금 웹사이트에서는 티셔츠, 커피잔, 보냉컵, 차량 부착용 스티커 등 머그샷 기념품 판매가 시작되었고, 머그샷 촬영 이틀 만에 710만달러(약 94억원) 모금이 조성되었다.<sup>24)</sup>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의 기소가 오히려 팬덤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이것이 이들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 VI. 반지성 팬덤정치와 민주주의 퇴행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팬덤이 시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불러넣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팬덤이 정치인의 활동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평소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에 빠져있던 시민들에게 정치적 호기심을 안겨준다면, 시민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정치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팬덤은 단순한 시민결사체가 아닌 의회와 광장 사이에서 시민들이 만든 일종의 정치적 결사체이다. 더욱이 팬덤은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한다. 선거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나 투표행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일상정치 속에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sup>25)</sup> 이처럼, 팬덤은 단순한 지지 행동가이기보다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소비 행위자이며 운동가이다. 따라서 팬덤은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일상화하고 강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팬덤은 정치의 재활성화와 민주주의의 복원을 수행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팬덤은 특정 정치인의 텍스트, 이미지 등을 재가공하면서, 그 가공물을 기존의 소비 방식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향유해 나간다. 단순히 투표행위나 정당 또는 인물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정치적 효능감에 만족하는 유권자로서의 대중과 달리, 팬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신들의 자원을 생산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벌인다. 이러한 팬덤 현

24) 이은아, “트럼프 머그샷 열풍이 보여준 팬덤 정치의 힘, 선거 때도 위력 발휘할까”, 『매일경제』(온라인),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817159>(검색일: 2024.02.15).

25) 박용구, 『문과,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서울: 메디치 미디어, 2018.

상은 대의제 중심정치에서 대중이 어떻게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sup>26)</sup>

이렇듯,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팬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능적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팬덤을 자생적인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팬덤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간은 일인칭, 주관적, 실천가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팬덤 모두 상당한 주관적 견해 속에 편견과 아집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불가피하다.<sup>27)</sup>

그럼에도 팬덤이 문제제되고 사라질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지나치게 일방향적인 경도된 자세, 즉 홀리건적 모습을 보여서다. 팬덤은 자신들의 내쪽 편향(my side bias)된 주장을 절대적 정의로 규정하거나 또는 민주주의로 포장하려한다. 만약 상대가 팬덤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앞세워 강력히 맞선다. 팬덤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팬덤은 확증 편향과 불일치 편향(disconfirmation bias)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홀리건에서 벌컨으로 전환하기보다 훨씬 더 나쁜 홀리건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sup>28)</sup>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은 팬덤같은 조직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sup>29)</sup> 팬덤은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절대선’이지만, 상대는 ‘적폐의 상징’, ‘절대악’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대를 붕괴시킬 태세로 공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지키려한다. 팬덤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열정과 관심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다수는 팬덤정치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라 여긴다. 팬덤정치는

26) 이승원, “팬덤정치와 포퓰리즘: 대안적 정치문화를 위한 기획”, 2021년 겨울호, 『문학과학』, (통권 108호), 문학과학사, 2021, p.112.

27) Mutz, Diana C.,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8) 브레넌(Jason Brennan)은 민주시민을 호빗, 홀리건, 벌컨 세 종류로 분류한다. 호빗은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그들은 여러 정치 사안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견이 부족하거나 의견이 없을 때도 있다. 홀리건은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서 대체로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안적인 관점을 설명하지 못하며, 편향된 방식으로 정치정보를 소비한다. 벌컨은 냉정 속에서 정치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편향되고 비합리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려한다.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서울: 아라크네, 2023, pp.42-43.

29)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3.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의 부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아직 민주화가 덜 됐다’는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에 내재적인 에너지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 힘인 것이다.<sup>30)</sup>

사회가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성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속의 민주주의와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들의 핵심적인 관심도 결국 다양성의 확산-유지-보장의 문제,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효과에 관한 것이다.<sup>31)</sup> 실제 다수의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공적인 대화와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의 활성화가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자본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sup>32)</sup>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랫(Daniel Ziblatt)에 따르면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헌법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이라는 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혐오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나 붕괴를 알리는 명백한 신호라는 것이다.<sup>33)</sup>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로 다양성의 의미를 가진 ‘상대주의’를 꼽았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며, 이것은 상대주의의 귀결이자,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관용은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으로 구분되어진다. 전자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즉 생각이 다르다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이것만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무현은 ‘적극적 관용’을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방임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

30) 신진욱, “은밀하게 민주주의가 사위어간다”, 『한겨레 21』(온라인),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검색일: 2024.03.18).

31) 나은경,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7, pp.163-189.

32) Huckfeldt, Robert, Jeanette Morehouse Mendez, Tracy Osborn,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vol.25, no.1, 2004, pp.65-95; Scheufele, Dietram A., “Social Structure and Citizenship: Examining the Impacts of Social Setting, Network Heterogeneity, and Informational Variabl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no. 21, 2004, pp.315-338.

33) 스티븐 레비츠키 외 지음, 박세연 옮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서울: 어크로스, 2018.

와 타협을 통하여 다름을 상호 수용하여, 이를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적극적 관용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로 본 것이다.<sup>34)</sup> 종합하면 민주주의 공동체는 서로 다름에 대한 합의(agree to disagree)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며, 이와 달리 적대적 대결과 반목이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즉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민주주의 공동체는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적대와 갈등을 화해시키는 데 실패하였기에 발생한다. 무페(Chantal Mouffe)에 따르면 정치란 상대(적)와 대립하는 우리들(편)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따라서 정치현장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대립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과정이 필연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당파적 편향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페는 상대와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지만, 민주주의 정치를 고려한다면 그 관계를 서로 경합하는 ‘정당한 경쟁자’, ‘정당한 적’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와 우리들 사이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상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우리들과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존재이고, 그런 맥락에서 상대는 적이 아니라 ‘경합의 대상’이라는 것이다.<sup>35)</sup>

오늘날 팬덤은 차이와 다양성을 배외하는 비이성적인 정치결사체로서, 이들의 행위는 관용의 민주주의, 경합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와는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주체적 행위자임에 틀림이 없다. 리더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몰입과 무비판적 지지 속에 형성된 팬덤의 집단 정체성은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반대진영은 물론, 자당 내부 구성원들의 이견조차 허용치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당내의 반대세력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좌표 찍기’ 등의 집단 공격을 통해 체계적인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팬덤세력들은 이와 같은 극단화를 토대로 팬덤중심의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sup>36)</sup> 이처럼 비이성적·비민주적 팬덤정치의 강화는 소통구조를 차단시키며, 그 결과 당내 의견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권력의 유일성만이 강화되어 권력의 획일화만 남게 된다.

팬덤이 정치를 장악하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sup>37)</sup> 민주주의

34) 노무현,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노무현 사료관』(온라인), <https://archives.knowhow.or.kr/rmh/web/view/868>(검색일: 2024.02.27).

35) Mouffe, Chantal, *On the Political*, London: Verso, 2011.

36) 오현철, “문재인 정치팬덤의 복합적 성격”, 『시민사회와 NGO』, 제19권 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1; 케이스 선스타인 지음, 이정인 옮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2009.

의 기본원리는 국민의 정치참여이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확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팬덤이 시민의 이름으로 전횡을 휘두르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된다. 활발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생명인데, 그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면 상대에게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팬덤의 정치적 행위는 민주적 경쟁과 참여확대를 방증하는 현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팬덤의 정치활동이 격할수록 사회의 균열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적과 동지,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같은 팬덤의 이분법적 접근은 상호인정과 관용, 공동선을 위한 대화와 승화의 공간을 질식시킨다.<sup>38)</sup> 이와 함께 일부 뉴미디어들이 팬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계속 판매하는 것은 결국 대중에게 정치가 타협을 수반할 수 있거나 수반해야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동인이 되며, 나아가 이러한 인식을 양산하고 세대를 키우는 계기가 된다.<sup>39)</sup> 팬덤이 정치의 재활성화와 민주주의 확장을 차단하는 위기의 민주주의 주체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V. 건강한 팬덤정치와 민주주의 증진: 노무현-노사모의 관계 검토

베버(Marx Weber)에 따르면 직업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치에 ‘위해(für)’ 사는 정치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에 ‘의해(von)’, 즉 정치에 ‘기대어’ 사는 정치인이다.<sup>40)</sup> 우리사회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영역을 위해 대중과 미디어를 동원하고 앞세우면서, 더욱이 이를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시켜 정치활동을 행한다.

권력지향은 모든 정치행위의 추동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권력추구가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인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직업 정치인의 신성한 정신은 배반이 시작된다.<sup>41)</sup> 정치

37) 다원주의적인 관념을 갖지 못한 열성적 일부가 정치에 참여하여 주도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Eisenstadt, Shmuel N., *Paradoxes of Democracy: Fragility, Continuity, and Chang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2.

38) 신진욱, ‘앞의 글’,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검색일: 2024.03.18).

39) 맷 타이비 지음, 서민아 옮김, 『헤이트: 우리는 증오를 팝니다』, 서울: 펠로소픽, 2021, p.82.

40) 막스 베버 지음, 박상훈 옮김,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23, p.28.

의 역할이 갈등의 조정과 문제해결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 지도자는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치가의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균형감각’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것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sup>42)</sup>

팬덤에 기대어 권력을 영위하는 정치가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중 영합적 포퓰리스트(populist)’라는 비판을 가한다. 주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가해도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팬덤으로부터의 열광적인 지지는 정치인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큰 자산임에 틀림없다. 특히 당내 비주류로서 조직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대권 또는 당권 도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팬덤을 얻는 것이 절대적이다.<sup>43)</sup> 이를 토대로 새로운 주류로 거듭난 정치인은 팬덤에 포획된 ‘일방향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상대진영과의 이해관계 조정의 정치의 팬덤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팬덤에 기승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활동이 사회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자신의 팬덤이 보내주는 환호와 맹목적 지지, 온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칭찬, 직접 전해오는 손 편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영상들에 기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려한다. 외부로부터 받는 문제제기를 자신의 팬덤이 제공하는 마약 같은 충성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sup>44)</sup> 특히 팬덤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에 대해 정치인들은 적극적인 자제를 요구하기보다 ‘정당하다’, ‘정의롭다’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이를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 최고 지도자들도 팬덤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팬덤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과 같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형태”라는 표현으로 화답하거나, 때론 팬덤의 폭력사태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더라도 단지 자제 요청의 메시지만을 보낼 뿐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sup>45)</sup> 당내 최

41) 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07, pp.106-107.

42) 막스 베버, ‘위의 책’, 2007, p.105.

43) 제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평정에 참여한 이재명은 당시 당내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은 적과 우리라는 이분법으로 정책, 대의정치와 정당보다는 국민직접정치와 SNS를 매개로 한 인민주의 호소, 숙의와 토론보다는 선명성과 강경성을 선동하는 단순화 표명을 통해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와 같은 경선평정은 ‘손가락혁명군’과 ‘이재명과 함께하는 십만대군’이라는 팬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강력한 지지 뒷받침으로 인해 이재명은 대중정치인으로 급부상 할 수 있었다. 채진원,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사회과학논집』, 제50권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pp.53-76.

44) 문상철, 『몰락의 시간』, 서울: 메디치 미디어, 2023, p.91.

45) 대표적인 예로, 아산 반찬가게 사건을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2월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

고 지도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다른 정치인들이 팬덤을 옹호하거나 기대는 계기가 되며, 당내 자정 능력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팬덤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팬덤의 뒤편에 기대어 정치를 추구하게 되면 일반당원과 대중들과의 거리 균형감각은 계속 무뎈진다. 이는 결국 ‘반(反) 정치의 정치’로 이어지게 되어,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다원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를 비례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팬덤정치가 약화되고 정당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헌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선거제 변화와 의원내각제 도입을 한다 해도 민주주의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sup>46)</sup>

팬덤정치가 민주주의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팬덤과 팬덤 리더 모두에게 ‘공화주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공화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독재’에 대비되는 개념이 ‘민주’라면, ‘협오’, ‘배제’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공화’라 할 수 있다. 공화 없는 민주는 자칫 협오의 정치로 빠져들기 쉽다.<sup>47)</sup> 공화주의는 ‘엘리트 간의 이성적 대화 및 타협’과 ‘시민들의 엘리트 견제’를 통해 구현된다.<sup>48)</sup>

우리사회에서 초보적 형태로나마 공화주의적 성격을 보인 팬덤과 팬덤 리더로 ‘노사모’와 ‘노무현’을 꼽을 수 있다. 노무현은 본인의 말이나 글에서 공화주의를 직접 표현한 적은 없지만, 상술하였듯이, 관용의 정치를 강조하였고, 민주주의에 관한 제언을 할 때 학문적 맥락에서 ‘비지배적 자유’라는 공화주의 정신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었다.<sup>49)</sup> 실제 그는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의 입을 막지 않았으며, 노사모가 있더라도 다른 집단을 배외하지 않았다.<sup>50)</sup>

---

하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한 반찬가게 상인에게 “좀 어머신가라고 물었고, 가게 여사장은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장사가 안 된다고 우회 토로했다. 팬덤은 이와 같은 표현을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라 간주하고, 해당 상인에 대해 신상털기, 불매운동 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언을 통해 진화를 나섰지만,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팬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46) 조영호, “팬덤정치 시대의 우리의 정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온라인),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42471>(검색일: 2024.02.07).
- 47) 노혜경, “공화주의 노무현: 지금 민주당이 나아갈 길”, 『오마이뉴스』(온라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1](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1)(검색일: 2024.04.11).
- 48) 안병진, “민주화 시대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 2009, p.56.
- 49) 채진원,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정신: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시민참여”,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인문사회 21, 2020, p.1460.
- 50) 유길용, “문제인 호위무사 ‘문빠’의 실체”, 『월간중앙』, 2020년 4월호,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9435>(검색일: 2024.03.17).

기성 정치권의 합종연횡과 편 가르기 등 구태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노무현의 끊임없는 도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발화(發火)된 것이 바로 노사모였다. 노무현은 제 8회 노사모 총회에서 축하 메시지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역설한 바 있다. 노무현에 따르면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sup>51)</sup> 노사모는 ‘노무현 팬클럽’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단순한 팬덤의 수준이 아니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즉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건강한 팬덤’이었다.

노사모와 노무현은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끌려온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희망을 함께 키웠다.<sup>52)</sup> 노무현은 평소 노사모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가졌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노사모를 선거캠프나 사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노사모에 대해 노무현의 고유명사가 아닌 시민정치를 이끄는 보통명사가 되어 달라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감시하고 자신을 혼드는 사람들도 감시하라고 당부하였다.

노사모 역시 그들의 슬로건인 “깨어있는 개인의 느슨한 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생각하는 개인, 각성하는 개인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평등과 관용의 원칙 속에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적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팬질을 통해 경쟁자들을 악마화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았고, 노무현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비판적 지지’에 가까웠다.<sup>53)</sup>

특히 노사모는 노무현과 맹목적인 수직적 관계만을 형성하지 않았다. 노사모 회원들은 그들의 주체로 노무현이라 밝혔지만, 노사모 입장에서 노무현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안의 정치인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한 노사모 회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다. 노무현의 일관된 경력, 원칙, 소신을 믿기 때문에 노무현을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실망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진흙을 몸에 묻힌 경우 일단을 말리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가차 없이 등을 돌릴 것이다.” (『월간 말』 2002년 5월호, p.65)

51) 노무현, 『진보의 미래』, 파주: 돌베개, 2019, p.295.

52) 노무현, “한국정치를 바꾼 ‘깨어 있는 시민의 힘’”, 『노무현 사료관』(온라인), <https://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969>(검색일: 2024.03.02).

53) 이철희, ‘앞의 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987.html>(검색일: 2024.05.31).

“노짱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정치인 노무현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수단이고 대안일 뿐 목적 자체는 아니다. 노사모가 사랑하는 노무현일지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여야 한다. 노사모가 노무현의 팬클럽 일지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게다가 노사모임을 빙자해서 노무현 지지가 우리의 전유물인 양 행동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월간 말』 2002년 7월호, p.95).

노사모는 평소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노무현에게도 민주주의자로서 공동선을 실현할 의지를 지니기를 요구하였고, 노무현도 노사모가 깨어있기를 강조하면서 공동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모와 토론을 자주 벌였다. 노사모는 지도자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가 아닌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추구하였고,<sup>54)</sup> 노무현도 여기에 기꺼이 응했다. 노사모는 노무현이 탄핵 사태로 위기에 처했을 때 17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기여하였지만, 노무현에게 절대적인 지지만을 보내지는 않았다. 노사모는 참여정부 정책이 공동선과 멀어졌다고 판단했을 경우, 예컨대, 이라크 파병문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참여한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에 노무현은 정책추진의 불가피성을 노사모에게 설득하였다. 노무현과 노사모의 사이는 맹목적인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가 상존하는 수평적 관계였다. 노사모는 ‘노무현의 승리를 위한 이데올로기’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는 노무현의 지적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자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존엄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다른 시민들도 함께 사는 법이다. 그들을 설득하고 비판하는 일과 배제하고 무시하며 쫓아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다원성, 개방성, 토론, 오류 가능성 같은 가치에 둔감한 민주정치는 형용모순이다.<sup>55)</sup> 오늘날 팬덤과 팬덤 리더가 비판을 받는 것은 앞서 언급한 형용모순의 민주정치를 추구하는 한편, 팬덤 리더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팬덤을 동원해 권력 강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54) 노혜경, ‘앞의 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1](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1) (검색일: 2024.04.11).

55) 장은주, 『공화주의자 노무현』, 서울: 피어나, 2024, pp.279-280.

## VI. 맺음말

우리사회가 팬덤정치를 두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의 폐단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 되면 우리사회의 정치분열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이는 비이성적 팬덤이 크게 번식하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팬덤정치는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이런 점을 주목해서 작금의 악순환 팬덤정치가 선순환 팬덤정치로 전환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정치참여의 형태로서 민주주의 증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팬덤정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팬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팬덤정치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팬덤정치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도화(framing)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 팬덤과 팬덤 리더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양자가 어떠한 정치활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팬덤정치는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아니면 민주주의 퇴행으로 몰고 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팬덤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지양되거나 혹은 사라져야 할 정치문화는 아니며, 팬덤정치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건강한 팬덤을 양성하는 데 있다.

오늘날 팬덤정치가 비민주성을 띠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팬덤이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 ‘선택적 과잉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sup>56)</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팬덤은 선동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상황을 단순화 시킨다. 자신들의 리더에게는 ‘절대선’의 존재로 부각시켜 편향적이면서 지나칠 정도의 광신적 지지를 보내는 반면, 상대는 ‘절대악’으로 간주하여 멸망시킬 태세로 공격한다. 우리는 틀리지 않고 그들이 틀렸다는 선동의 수사학이 거세질수록 생산적으로 숙의한다는 민주주의 전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sup>57)</sup> 팬덤은 이성보다는 증오와 혐오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 팬덤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팬덤은 나쁜 정치, 즉 비민주적인 조직체 중심에 서 있는 주체임에 틀림이 없다. 편 가르기를 통해 상대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은 비민주성과 직결된다. 또한 팬덤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의 집단화 현상은 다원 민주주의를 멀게하고, ‘사인화 된 민주주의’를 가져오게 한다.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여, 팬덤 리더의 정치적 영광을 위해 그에게 맹목적이면서 광신적

56) 강준만, 『공감과 비극』,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23.

57) Roberts-Miller, Patricia, *Demagoguery and Democracy*, New York: The Experiment, 2017.

지지를 보이는 것은 전체주의 현상과 흡사하다. ‘리더를 위해 모든 것’, ‘리더에 대항함 없이’, ‘리더 밖에 없다’라는 고착된 인식 하에서 상대를 무조건 배제시키고 질서화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당정치의 축소와 함께 민주주의를 쇠퇴 시킨다.

하지만 노사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팬덤정치가 민주주의의 기제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노사모도 일부 회원들의 과격성 등을 비롯하여 일정부분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래도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였지만,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선 추구와 결부된 정치행위에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노사모는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으며, 그의 정책 방향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적극적 비판도 가하였다. 노사모는 오늘날 팬덤과는 달리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권력의 소유가 아닌 공동선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행위를 이어갔다. 그 결과 노무현과 노사모는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의 정치는 일체 일삼지 않았다. 노사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정치철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팬덤정치의 극단화를 방지하고 사회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팬덤이 사회 공동선을 위한 노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야하며, 관용과 경합 속에서 정치행위를 이어가야한다. 민주주의 확대와 강화 차원에서 팬덤정치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정당의 몫이 크다. 비합리성의 만연, 그리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어 극단화 되는 것은 정치인과 정당이 ‘다름의 역동성’을 차단해 서이다. 이는 위계적이면서 수직적인 정치문화를 형성케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당과 민주주의의 기능 저하와 직결된다. 팬덤의 강성화 또는 극단화를 막고 팬덤이 민주주의 증진의 보완적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팬덤의 선동정치에 대한 정치인과 정당의 적극적인 반응과 책임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명현, “유튜브는 확증편향을 강화하는가?: 유튜브의 정치적 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제20권 4호, 한국소통학회, 2021.
- 강병익, “한국의 반지성주의적 팬덤정치와 정당의 내파와 축소”,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22.
- 강준만, 『공감과 비극』,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23.
- 김정호, “팬덤공중의 성격에 대한 시론: 검찰개혁 촛불시위에 나타난 문제인 팬덤을 중심으로”, 『시민과

- 세계』, 참여연대 참여시민사회연구소, 통권36호, 2020.
- 나은경,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 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7.
- 노무현,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2009.3.1), <https://archives.knowhow.or.kr/rmh/web/view/868>(검색일: 2024.02.27).
- 노무현, “한국정치를 바꾼 ‘깨어 있는 시민의 힘’”, (2012.12.10), <https://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969>(검색일: 2024.03.02).
- 노혜경, “공화주의 노무현: 지금 민주당이 나아갈 길.” 『오마이뉴스』(2024.3.1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147)(검색일: 2024.04.11.)
- 노무현, 『진보의 미래』, 파주: 돌베개, 2019.
- 막스 베버 지음, 박상훈 옮김,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23.
- 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07.
- 문상철, 『몰락의 시간』, 서울: 메디치 미디어, 2023.
- 박권일, “정치 팬덤이라는 증상: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과 비판을 중심으로”, 『자음과 모음』, 2018년 가을호, 『자음과 모음』, 2018.
-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2023.
- 박용구, 『문과,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서울: 메디치 미디어, 2018.
- 송경재, “보수의 몰락 2: 버림받은 보수(下)”, 『머니투데이』(2017.12.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130906769814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검색일: 2024.03.11).
- 송경재,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3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 스티븐 레비츠키 외 지음, 박세연 옮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서울: 어크로스, 2018.
- 신진욱, “이울배반 민주주의”, 『경향신문』(2020.02.06), <https://m.khan.co.kr/opinion/public-opinion/article/202002052042005>(검색일: 2024.02.15).
- 신진욱, “은밀하게 민주주의가 사위어간다”, 『한겨레 21』, 1432호(20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45.html)(검색일: 2024.03.18).
- 안병진, “민주화 시대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 2009, pp.53-59.
- 오현철, “문재인 정치팬덤의 복합적 성격”, 『시민사회와 NGO』, 제19권 1호, 한양대학교 제3섹트연구소, 2021.
- 유길용, “문재인 호위무사 ‘문빠’의 실체”, 『월간중앙』 4월호(2020),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9435>(검색일: 2024.03.17).
- 이우연, “‘친명 유튜브 말대로 공천이’... 커지는 이재명 사천 논란”, 『한겨레신문』(2024.02.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0312.html>(검색일: 2024.03.17).
- 이은아, “트럼프 머그샷 열풍이 보여준 팬덤 정치의 힘, 선거 때도 위력 발휘할까”, 『매일경제』(2023. 8. 29),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817159>(검색일: 2024.02.15).
- 이철희, “애착을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한겨레신문』(2024. 5.10),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987.html> (검색일: 2024.05.31).

- 이승원, “팬덤정치와 포퓰리즘: 대안적 정치문화를 위한 기획”, 『문학과과학』, 통권 108호, 2021.
- 이현숙, “정치 팬덤 문화가 뮤지컬 제작에 미치는 영향: <뮤지컬 박정희>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제17권 2호, 한국영화교육학회, 2023.
- 장은주, 『공화주의자 노무현』, 서울: 피어나, 2024.
- 조은혜, 『‘팬덤정치’라는 낙인: 문재인 지지자, 그들은 누구인가』, 광주: 오월의 봄, 2023.
- 조영호, “팬덤정치 시대의 우리의 정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2023),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942471>(검색일: 2024.02.07).
-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서울: 아라크네, 2023.
- 차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정치·정보연구회, 2021.
- 채진원,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사회과학논집』, 제50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9.
- 채진원,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정신: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시민참여”,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인문사회 21, 2020.
- 최장집, “민주화와 민주주의 위기”,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최 특별강연, 2023.04.19.
- 캐스 선스타인 지음, 이정인 옮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2009.
- 맷 타이비 지음, 서민아 옮김, 『헤이트: 우리는 증오를 팝니다』, 서울: 필로소픽, 2021.
- Arendt, Hannah,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3.
- Eisenstadt, Shmuel N., *Paradoxes of Democracy: Fragility, Continuity, and Chang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2.
- Hellmann, Olli,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Parties: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4, no.1, 2014.
- Huckfeldt, Robert, Jeanette Morehouse Mendez, Tracy Osborn,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1, 2004.
- Mouffe, Chantal, *On the Political*, London: Verso, 2011.
- Mutz, Diana C.,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Przeworski, Adam, *Crises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Roberts-Miller, Patricia, *Demagoguery and Democracy*, New York: The Experiment, 2017.
- Scheufele, Dietram A., “Social Structure and Citizenship: Examining the Impacts of Social Setting, Network Heterogeneity, and Informational Variabl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no. 21, 2004.
- Williams, Rebecca and Lucy Bennett, “Fandom and Controvers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6, no. 8, 2022.

【 Abstract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Mechanisms in Fandom Politics

Cho, Jae wook · Kang, Jin woo · Kim, Yeon ju

Today's fandom politics poses a risk to democratic society. Fandom politics is parasitic, using hatred and loathing as its host rather than reason. However, fandom politics does not completely reject the values of democracy. In some respects, fandom politics is the result of the progress of democracy in our society. Through the Nosamo(Roh Moo-hyun's fan club) case, we were able to witness that fandom politics can be a mechanism for democracy. Nosamo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orked for a Roh Moo-hyun, but did not blindly follow him. and Nosamo did not engage in dichotomous politics of either us or the enemy. Such actions were possible because NoSamo carried out political activities with critical reas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the common good. The above political actions were possible because Nosamo carried out political activities with critical reas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the common good. In addition, Roh Moo-hyun's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m. The characteristics of fandom politics can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fandom and the leader's leadership, and this affects the direction of democracy, that is, whether it is regression or progress. To prevent fandom from becoming stronger or more polarized and for fandom to function as a complementary mechanism for promoting democracy,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must actively respond and take responsibility for fandom's demagogic politics.

**Key Words** : Political Fandom, Fandom Politics, Democratic Mechanism, Nosamo(Roh Moo-hyun's fan club), Republicanism

---

• 논문투고일 : 2024년 6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10일